

탭 1

< 한번의 로입캠프 합격수기 >

2025학년도 입시 후기

한양대학교

1. 최종 정량 (리트, 학점, 토익, 어학, 메가 기준 최종배수:추정치)

- 리트 120중반 /GPA 90중반 /토익 PASS

2. 본인의 로입 준비과정

[포릿 원툴...!이었던 케이스네요]

- 저는 전업 준비생이었으나, 여러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리트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2월에 졸업 후 5월부터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전국모의고사는 3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응시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해당 시점에 다 듣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듯하여 선택적으로 수강했고, 사실상 전국모의고사를 통해서 긴 시험시간 동안 버티는 연습을 한 것 정도만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아팠던지라, 건강 회복의 과정에서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고 올해는 경험 삼아 쳐보자는 생각이었어서 기출도 다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시험이 타 년도에 비해 쉽게 출제되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급하게 마킹한다고 가채점보다 2-3개 더 틀리는 등 마킹실수 이슈도 있었습니다.)
- 리트 점수보다도, 포스트리트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올해 입시의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리트 과정은, 한번의 로입캠프에서 자기소개서 과정+면접 2기 시뮬레이션 과정을 수강했고, 면접 관련 개념 채우기+데일리 면접 스터디로 강길스터디의 면접과정을 수강했습니다.
- 주변에 로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리트 점수만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한번의 로입캠프를 통해 지도받았기에 로입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원서영역, 공동입시설명회, 자기소개서 쓰기 전 인생 돌아보기, 글감 찾기, 글감 배치하기, 초고 써내기, 다듬기,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수정, 포릿 과정에서의 멘탈관리(ㅠㅠㅠㅠㅠㅠㅠㅠ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부분이라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곁들여지는 로스쿨 생활 관련 꿀팁 등등! 정말 모든 과정에서 도움받았습니다.
- 특히 포릿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쳐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몇 번이나 찾아왔고, 자소서 기간에는 매주 2-3회씩 링겔을 맞아가며 버텨음에도.... 건강 이슈가 심각했는데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쉰 날도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시고 다독여주셔서 포릿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포기할 생각도 했었고, 내년도 입시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완주에 목표를 두고 했던지라 놀라운 결과에 그저 얼떨떨할 따름입니다.
- 수강한 프로그램과 스터디 이외에 제가 따로 한 건, 휴식 시간에(누워있을 때) 부족한 시사 지식을 채우기 위해 매일 속보 및 뉴스들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보거나 들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회과학 지식이나 이슈 관련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면접 과정 준비하는 내내 매일 핵심적인 이슈는 최대한 숙지했습니다. 또 너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기엔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정도였지만 저처럼 시사 부족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도 뭐라도 아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S1-S4 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S1]

- S1을 통해서는,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과거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S1을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자꾸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 심리치료(?)를 받은 느낌입니다.
-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대학을 바꾸면서 진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을 했고, 그 때문에 인생이 늦어지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S1을 쓰면서 제 인생의 흐름과 그때 느꼈던 점들을 스스로 한 번, 그리고 변호사님과 작가님의 (타인의) 시선에서 다시 돌아보고 코멘트를 들으면서 '잘못 산 게 아니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동입시설명회에서도, 교수님들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의 어린아이가 드디어 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제 성격유형이나 생각패턴은 부모님조차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20년 이상....), 변호사님과 작가님은 S1만 보고 파악해내시고 상위 쟁점을 기막히게 추출해줍니다.. 민간인 사찰(?) 당한 느낌이고,, 놀랐어요... 그치만 그 덕분에 그동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인생에도 장점과 좋게 볼 구석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흙 속의 돌에서도 어떻게든 둥글고 빛날 구석을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 솔직히 포맷 과정까지도 정말 자존감 이슈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고, 그런데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근이 필요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채찍만 주는 편인데, 꼭 필요한 당근들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입시설명회]

- 공동입시설명회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과정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직 교수님과의 오직 나에게 집중된 1:1 대화시간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께 '면접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해당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 등등에 대해 들은 게 면접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교수님들은 공통적으로 면접 또한 교수님들과의 '대화' 시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성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등을 보신다고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의 면접 모두에서 '교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는 건 부족했어도, 교수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임을 주지하지 않았다면 그저 '잘 하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S2, S3]

- S2, S3 과정에서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다른 분들에 비해 내야 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늦어졌음에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주시고, 그동안 못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면 좋을지 직접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셨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과 회의감도 정말 많이 느꼈는데, 오은영 박사님처럼 멘탈케어를 계속 해주시고 다독여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비법학 전공에,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학 계열도 아닌 사범, 특히 초등교육 계열이기에 법학과의 연계성을 찾기 쉽지 않았고, 대외활동이나 봉사도 전무했으며 대학교도 2번 다닌 특이한 이력이어서 정말 쓰기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소재를 하나 생각해내면, 정말 둘 정도의 소재에서 어떻게든 확장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주시고, 아침이든 밤이든 함께 고민해주셔서 글감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S2 과정까지도 사실 이 과정들에 감이 안 잡혀서 S3에서도 S2와 다른 새 글을 쓰려고 하곤 했는데,,, 그 많은 글자와 내용들을 묵묵히 다 읽고 강가의 사금 찾듯,,, 찾아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S4 과정에서도, 제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호소력 있는 글이 아닌 글감의 나열만 계속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그날까지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초조하게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끊임없이 여쭙보고 질문했음에도 항상 세심하게 답변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면서 처음 제 자기소개서를 읽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소서 작성에 대해 생겼던 막연한 공포도, 이번의 성공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

- 이 모든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속 변호사님들의 줌과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강의들이 제시되는데, 그게 정말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법학 전공자에 사회과학계열이 아니고, 학교에서 로입을 하는 사람이 전멸했다시피 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A부터 Z까지 다 떠먹여주십니다.

- 자기소개서를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자소서를 쓰는 기본 틀, '마인드'부터 개조해주셨습니다. 한번도 자기소개서에서 성공경험이 없었던 무지한 인간인지라, 마인드 개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 '변호사'라는 직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가 이 분야에서 주된 직업이 아닌 '법조인'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 법조시장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 밀고 가야 할 캐릭터(?)까지 다 잡아주십니다.
- 저는 대학입시 때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학원(?)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카이크슬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고, 늦게나마(?) 이런 곳을 만날 수 있었다니 제 올해의 가장 큰 행운은 한번의 로입캠프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어떤 변호사의 지도가 가장 도움되었는지?

선반공 변호사님!!

변호사님 없었으면 로입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 중간에 정말 금쪽이스러운 행동을 너무너무너무 !!!! 많이 해서 그저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인으로서 일을 똑바로 완수하지 않는 건 정말 책임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공포의 영역인 자기소개서에서는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회생할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독여서 끝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자기소개서 제출도 할 수 있었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 길을 마음대로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제게 맞는 방향성을 설정해주십니다. 정말... 제게 맞는 커스텀 캐릭터 커스텀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어의 마술사..... 심리상담가..... 오은영 박사님.....
- 공동입시설명회에서도 변호사님이 예상되는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제 이력에서의 가장 큰 의문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염두에 둘 만한 다른 학교도 꼭 집어서 가보도록 해주셨고, 덕분에 학교별 인재상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못도 못 고르겠어서 여쭙봤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 또, 단지 로입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스승님이 되어주십니다! 로입 이후의 생활, 법조계에서의 진로방향 설정, 변시 준비의 방향성, 인강/현강 어떻게 들을지, 등등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시야는 딱 '로입'에만 머물러있었는데, 로스쿨 이후의 생활이 어떨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좋을지 등으로 제 시야를 확장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인생을 좀 더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정말 없었는데, 좋은 점을 찾아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사실 자소서 컨설팅뿐 아니라 심리상담까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로입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과정을 마무리할 때쯤엔 변호사님의 꾸준한 지도 덕분에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겠다는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스승님 중 가장 제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님은 진짜 진로상담 경력도 몇 년 이상 있으셔서 그런지 상담전문가신데, 이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곁들여진..... 제가 a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A+B+C+.... 를 찾아주십니다. 백과사전 같았고, 변호사님을 보면 아직 AI가 사람 따라가려면 머나먼 것 같네요..^^!
- 변호사시험까지 책임져준다고 하십니다^^!!! 믿고 따라갈게요~~~~~!

5. 한번의 로입캠프 과정에서 가장 추천하는 부분

-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님께서 한 명 한 명 정말 신경 써서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잠을 주무시나 싶을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해 주셨습니다. 과정 전반에서, 단순히 '직업'이라기보단,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더욱 벅차고 감사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 과정으로 볼 때는 공동입시설명회 관련 사전 지도 및 현장/사후 체크 등이 다른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특히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무리이다 싶은 학교를 지원할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 명 한 명의 질의결과를 모두 읽어보시고 원서 작성할 학교를 골라주십니다.

- 입시에 있어서는 점수보다 사실 원서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정량대에 비해 특이(?)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캠프 덕분입니다. 캠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어디라도 꼭 붙고 싶다는 생각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걱정-하향이나 점수대 기준 안정(?) 두 군데만 쓰고, 불안해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합격 발표 날까지도 스스로가 양심 없는 원서를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초합에 정말 놀랐습니다.
- 사실, 가장 추천한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점이 추천 사항이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 로입과 합격의 99%는 캠프가 해주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에게 치트키 아이템을 잔뜩 주고 어르고 달래서 한 인격체로 성장시켜주신 느낌입니다..^^ 주니어네이버 동물농장이 생각나네요,,)

6. 만약 같은 커리큘럼의 과정을 추천한다면 어떤 분에게 추천하실 건지?

- 평소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자신이 없고, 로스쿨 입시에 대해 정보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A부터 Z까지 떠먹여주시는 곳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저는 살면서 자기소개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이 없었습니다. 고3 입시 때 자소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로입 과정에서도 계속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쳤기에 비로소 저에게 비교적 읽을 만한 자소서가 완성되었고, 처음으로 자소서다운 자소서를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자소서 쓰기 너무 무섭고, 주변에 로입 관련 지인도 별로 없고, 정보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저입니다) 이 캠프와 함께라면... 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

7. (면접 과정에 참여했다면) 면접 과정이 어떻게 도움 되었는지?

- 저는 면접 2기 시뮬레이션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전에는 줌으로 하는 온라인 스터디만 주 2회 가량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다 보니 긴장감 없는 스터디가 이어졌었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을지라도,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의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합격수기를 읽었을 때처럼 스터디를 몇 개씩 돌리는 건 제 체력과 시간상 어려울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면접 한 달 전만 해도 면접 상황을 상상하면 덜덜 떨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 로입캠프 면접 과정을 통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연습을 정말 실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피드백과, 내가 아닌 다른 응시자들의 답변에서 좋은 논거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8. (면접 과정에 참여했다면) 면접 과정은 어떤 분에게 추천하실 건지?

- 면접에 자신이 없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전문가의 실전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다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나 말하기에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진짜 현직 전문가의 날카로운 피드백을 하루 종일 받으며 면접에만 전념하시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다른 응시자/면접자의 실력 확인 및 다양한 전공자의 시각에서 같은 논제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듣고 감탄하고, 또 그걸 획득해서 쓰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로입 기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서,, 같이 준비하면서의 으쌰으쌰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나름 일상의 소소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별도 좀 온라인 스터디로 주로 시사 관련 이슈만 공부했고, 제 개별 학교 스터디도 따로 하지 않아서.... 기출 대비 및 오프라인 실전 면접 경험, 그에 따른 피드백이 절실했습니다. 리트를 치고 나서 급하게 로입을 하게 되어 토익 점수 준비, 자소서 작성, 면접개념 학습, 면접 스터디 등등을 모두 병행하다 보니 저는 스터디를 다른 수기에서처럼 여러 개씩 돌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후다닥 야매(?)로 흘러간 느낌입니다만, 제 부족한 채우는 공부량(?)에 비해 가장 효율적인 아웃풋을 내도록 도와주신 것은 면접 캠프였습니다. (면접 1기도 듣고 싶었는데 당시 서류 제출 이후 기간이라 체력상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강하지 않았습시다만, 돌아간다면 수강하고 싶습니다.)